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해결성과 인센티브의 효과가 조직목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손 선 화** · 엄 영 호***

본 연구는 본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들이 경제적 가치 추구 과정에서 기업의 운영 목적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한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할 때, 현실 경제의 논리 속에서 본래의 조직 목표가 변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실제 운영에 있어 이익추구에 방점을 두는 조직 목표 변화의 영향요인을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사회적가치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기업 스스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대와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사회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익창출에 대한 목표가 크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지원금 수혜기간은 초기 5년까지 정부지원금은 사회적 기업의 생존을 위한 수익창출에 집중되나, 5년을 넘어설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목표를 수정해나간다는 사실이다. 즉,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역할 확대와 선순환 구조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보다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이 지닌 특수성으로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동시 추구를 실증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과 사회적 기업의 목표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역할을 확대하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장기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주제어: 사회적기업, 조직목표변화, 사회적 가치, 정부보조금

* 이 논문은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Center for Social Entrepreneurship Studies)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로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로

I. 서론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들이 경제적 가치 추구 과정에서 기업의 운영 목적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한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할 때, 현실 경제의 논리 속에서 본래의 조직 목적이 변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는 정부지원을 배경으로 눈에 띄는 양적 성장을 경험하였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실시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가 인증한 전국의 사회적 기업 수는 55곳에서 2018년 2,123곳으로 급증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일자리 문제와 환경·복지 등 사회문제를 동시에 잡기 위해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태생은 사회문제해결에서 시작한다. 정부와 시장의 운영 원리인 ‘공공성’과 ‘효율성’을 결합함으로써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문제해결의 대안으로 부상해온 것이다(조희진·장용석, 2016). 즉, 사회적 기업은 기존 기업이 갖는 경영원리와 철학을 따르되, 사회 문제의 해결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서 기존 기업과는 차별화 된다(김재홍·이재기, 2012; 선남이·박능후, 2011). 이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함께 고려해야 하는 조직임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이전보다 확대되면서 목표가 다양화되고 종류도 분화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여전히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경제적 가치 창출을 통한 조직의 생존에 대한 고민 역시 사회적 기업이 가진 숙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성만을 강조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조직의 정당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조직이 가진 상황에 따라 조직의 경영원리가 다르게 적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의식 하에서 호혜적 경영 원칙에 따라 운영되다보니, 수익구조 개선 및 경제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최태원, 2014).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사회적 기업 정책은 보조금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급급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그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기업 운영의 현실성과 정당성 사이에서 사회적 기업은 본연의 목표인 사회적 가치 추구하고 실제 운영에서의 괴리로 인해 목표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 기업의 정당성은 동학(Dynamics)를 살펴보면 크게 실질적 운영(substantive management)와 상징적 운영(symbolic management)로 나뉜다(Ashforth et al.,

1990). 즉 정당성의 양극단(Double-Edge)을 통해 운영원리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도 조직의 정당성을 위하여 사회문제해결에 일조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 수익창출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도모해야 하므로 외형은 사회적 기업이나 실제로는 일반기업의 형태를 갖거나 혹은 사회적 가치가 부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가능성이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직형태의 유입이 촉진되는 현상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정당성(legitimacy)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설립하여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황정운·조희진, 2016).

조직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정당성의 확보를 통해 조직의 구조, 전략, 목표 등을 변화시키고 제도적 환경에 조응하고자 한다(Frumkin & Galaskiewicz, 2004; Meyer & Rowan, 1977; Scott, 2008). 그동안 정부의 정책으로 육성되어 왔던 사회적 기업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여 '일자리 제공 및 창출'이라는 제한된 목표에 집중되어 있다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조희진 외, 2017). 일부 일반기업은 지자체 위탁을 받기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사회적 기업이 생존을 위해 점점 영리화되어 가는 모습에서 사회적 가치와 이익이 전도됨을 발견하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이현주, 2016). 정부 보조금이 사회적기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안정화에 큰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져 왔지만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서 보듯이 조직의 특성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자성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과 수익창출 및 이윤극대화라는 두 축을 두고 어떤 요인이 사회적기업의 이 상적인 역할과 미래지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에 따른 목표변화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 보다 공평한 경제 체제로서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사회적 경제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적 경제는 주류 경제원리로서 주목받지 못하였고(김경희, 2013; 장용석 외, 2015), 개념 역시 학자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¹⁾되어 왔다. 지난 10여 년간 주목받아 온 사회적 경제는 기업의 이윤극

1) 사회적 경제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 19세기 프랑스 자유주의 경제학자 Charles

대화만이 아닌 사회적 연대를 통한 사회적 목적의 추구,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민주적 가치를 함께 조화하고자 하는 경제개념이다(Gueslin, 1998; 남승연 외, 2010; 김영철, 2011; 장용석·조희진, 2013; 장용석 외, 2015; 엄영호 외, 2018). 개별 기업 및 조직의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경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유를 통해 시장원리와 차별되는 경제원리를 지닌다(장용석·조희진, 2013).

사회적 경제는 시장과 사회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융합과 공존을 포함한다. 시장에 대한 대안적 자원배분과 더불어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 자기혁신과 상호 협력 등 비시장 경제적 운영원리를 담고 있다(장원봉, 2007; 신명호, 2013; 송위진, 2014; 엄영호 외, 2018). 한국의 경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의 출범 이후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창출이 화두가 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관심을 받는 대표적 조직 형태는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 역시 사회적 경제와 마찬가지로 개념이 명확하게 합의되지는 않았으나(Galera & Borzaga, 2009; Weerawardena & Mort, 2006), 공통적으로는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고 있어 비영리기관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기업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조상미 외, 2018). 사회적 기업은 경영원리로서 경제적 가치 창출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존의 경영원리에서 담아내기 힘들었던 조직이다.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목적을 실현하는 혼합조직(hybrid organization)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시장성과 공공성이 공존하는 자본주의의 대안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Battilana et al., 2012; 박찬임, 2008; 장성희·반성식, 2010; 장용석·조희진, 2013; 조희진, 2014).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주목에 비하여, 사회적 기업의 성공가능성은 일반 기업에 비하여 낮고 불확실하다. 그러나 지속가능성과 생존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법적 근거의 마련으로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였으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으며 좋은 일을 하는 착한 기업이지만, 제품의 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얻는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2017 <사회적가치서베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 기업,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의 기관 신뢰도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물어본 결과, 유일하게 사회적 기업만이 불신의 비율이 16.3%로 10%대를 차지하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대기업 지원확대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

Dunoyer가 그의 논문 노동의 자유(De la liberté du travail, 1830)로부터 유래한다(Dunoyer, 1973; 주성수, 2010; 신명호, 2013). 그러나 사회적 경제란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00년 파리세계박람회(The Paris World Fair 1900)에서 Charles Gide가 모든 유형의 결사체들을 박람회의 한 장소로 배정하고 이를 사회적 경제로 명명한 것을 시작으로 한다(Defourny & Develtere, 1999; 장원봉, 2007; 장용석 외, 2015 재인용).

타나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장용석 외, 2018). 즉, 부정적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영리기업에서 주로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 외에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까지도 창출하는 조직으로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조상미 외, 2018). 사회적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유형별 분류를 보면 일자리제공형 1,442(66.9%)개, 창의·혁신형 260(12.1%)개, 사회서비스제공형 133(6.2%)개, 지역사회공헌형 128(5.9%)개, 혼합형 191(8.9%)개이 차지한다.

사회적 기업은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적 역할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써 조직을 창업하거나 기존 기업의 운영원리를 변경한다.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정신에 기인하는 것이다(Alvord et al., 2004). 또한 사회적기업의 창업초기 단계에서 창업자 행동은 창업초기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창업자 행동이 사회적기업의 영리적 성과뿐만 아니라 공익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홍은표·김진희, 2018). 이러한 역할 인식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적 경제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사회적 경제의 확대와 생태계 조성은 사회적 기업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조직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폭발적 증가 현상을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성과 기능적 설명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며, 보완적 설명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넘어 장기적인 조직의 생존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직이 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완적 기제로서 구성주의적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여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기업의 목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로 검정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가 가능할지,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경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적 기업의 목표가 이전보다 사회적 가치로 높게 변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2.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가치 추구에 따른 목표 변화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기업이 경영 역량 증진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다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도 어려워지는 것

이 사실이다(장용석 외, 2018). 조상미 외(2012)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비영리 사회적기업의 변화관리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사회적기업의 비영리적 성격과 기업적 성격에 따라 두 가지 목표사이에 균형을 잡기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추구와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회적 기업이 생존을 위해 사회적 가치는 뒤로 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이 현실이다(이현주, 201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직형태별 현황을 살펴봐도 상법상 회사(59.3%), 농(어)업 회사법인(3.0%), 협동조합(6.3%)은 영리형태의 사회적 기업에 해당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환경오염 등 사회 문제와 이슈들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모델로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 즉 시장과 사회, 효율성과 형평성, 발전과 정의의 융복합적 가치의 공존이라는 정당성을 획득해 나가고 있다. 정당성은 사회체계 안에서 조직의 역할을 정당화해주고, 그 자체로 자원이 되어주지만 사회적 가치와 기대는 종종 모순적이고, 실현하기 어렵다(Ashforth et al., 1990). 현재 인건비 중심의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사회적 문제해결이라는 본연의 조직목적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했을 때 폐업을 또한 함께 올라가는 한계가 두드러진다. 폐업한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수익모델의 현실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조상미 외, 2017). 제도주의 조직론에서도 ‘적절하고, 적합하고,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신화(myth)를 조직이 수용한 결과로, 조직의 변화에 중요한 기제로서 정당성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한다(Oliver, 1991; Scott, 2008; 조희진·장용석, 2014; 조희진·장용석, 2016; 정명은·안민우, 2017; 손선화 외, 2018). 사회적 기업 역시 사회문제의 해결과 정당성의 측면에서 조직의 역할, 규칙, 목표 등이 논의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개별 조직들에게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정당성 확보가 결국은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조직 존재의 의미를 만들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연구는 목적론적이고 규범적이던 연구에서 최근 들어 사회적 기업 성과로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재무적 지표로 전환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념과 역할 소개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성과, 정부보조금의 영향력(황정운·조희진, 2016)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가치에 기여하는 재정적이고 금전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보조금이 사회적 기업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기여하는지의 논란이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재정적 지원은 중요

한 운영 요인으로 사회적 기업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기업의 목표가 이전보다 사회적 가치로 높게 변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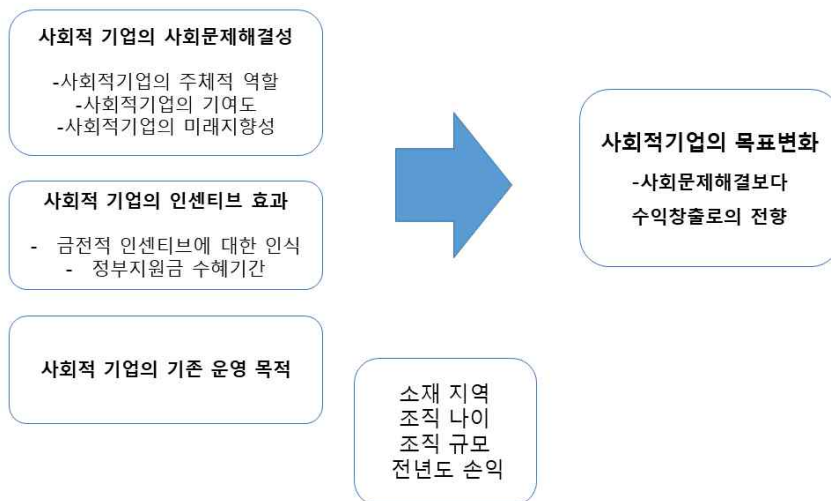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는 어렵지만 재무적인 수익의 창출이라는 경제적인 성과와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성과를 모두 포함해야한다는 견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준희, 2016; 조상미 외, 2018).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연구자들마다 측정 방법 및 지표의 차이가 나타나고 사회적 가치 추구에 따른 성과의 결과가 혼재되면서 학자들 간 논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즉, 사회적 가치의 추구가 재무성과 및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혼재되어 제기되는 것인데, 많은 연구들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정수현·김숙연, 2018). 특히,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정도에 따라 다양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목표를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설명한 기존 연구들은 상당히 드문 편이다. Dart(2004)는 보편적 규범으로서 기능하는 시장의 원리가 비영리조직에 수용되어 나타난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규범적 차원의 설명에 그치고 있다. 오단이(2013)의 연구 또한 인증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그 형성 및 성장 과정을 정당성 확보 차원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지만, 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 연구이므로 그 결과를 전체 사회적 기업군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 혹은 사회적 가치가 재정적 성과 및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지역사회 재투자 및 간접 활동도 기업의 명성과 평판을 제고시켜 매출 증가 및 가치 증진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한다(Schwartz, 1968; 이광윤, 2011). 건전한 경영, 소비자 중심의 활동, 환경 친화, 경제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이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준·이종진, 2002; 위평량·김윤호, 2006; 김창수, 2009; 김숙연, 2014; 김용현 외, 2015).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 혹은 사회적 성과를 경실련의 경제정의지수(KEJI Index)에 의한 건정성 및 공정성 지표, 윤리경영 지수, 사회공헌활동 등을 변수화하여 경제적 가치인 매출액, 총자산이익률, 유동비율, 주식수익률 등과 비교하였다. 반면,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 성과를 경제적 가치 이외에 발생하는 사회적 영향 중 화폐가치로 환산 가능한 부분을 사회적 성과로 측정하였다. 순편익, 정규직 비율, 취약계층 고용비율, SORI 활용, 취약계층 고용으로 인한 공공부문 지출감소 등을 변수화하여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비용으로 사회적 가치로 인한 기회비용, 정부 보조금 등을 활용하였다(안영규, 2010; 선남이·박능후,

2011; 한국사회적기업연구소, 2011; 김숙연, 2016). 사회적 기업 역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종합하면, 사회적 기업의 운영 목표에 있어 딜레마 상황에 대해 중점을 둔 연구는 부족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의 운영 목표를 변화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의 인식과 운영원리가 수익창출로 목표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가설 3: 사회적 기업의 현재 운영 목적이 이윤창출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기업의 목표가 이전보다 경제적 가치로 높게 변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Ⅲ. 연구 설계

1. 분석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들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기업의 운영 목적 변화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결측치

(missing value)를 제외한 162개 사회적 기업이며, 분석 시기는 2018년 단년도이다. 분석에 활용한 설문조사 자료는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2018년 국민, 사회적기업,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참여기업, NGO 등에 실시한 사회적가치서베이 DB이고 사회문제 및 해결에 대한 인식과 태도, 사회적 기업 현황, 사회적 기업의 정책 수요 그리고 사회투자자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2018 사회적가치서베이는 전국의 고용노동부 인증 1,281개의 사회적 기업 중 계통법 추출법에 따라 319개의 표본을 도출하여 2018년 3월 6일부터 4월 13일 까지 기업방문 대인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모집단의 사업내용, 사회서비스 분야, 지역을 고려하여 1순위부터 4순위까지 표집을 진행하였으며 1순위 사회적 기업이 조사에 참여할 수 없거나 3차례 이상 조사요청 거부시 2순위 사회적 기업을 조사하도록 설계되었다. 전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사회적가치서베이 DB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성을 충족할 수 있다. 설문조사 자료는 단년도 자료로서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른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에 활용된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의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회귀분석 방법인 OLS(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를 실시하였고, 분석을 위한 통계 패키지는 STATA SE 1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사회적기업의 목표 변화이다. 사회적 기업이 향후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문제해결보다 수익창출에 방점을 두는 경우를 측정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있어 사회문제해결 혹은 수익창출 및 이윤 극대화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2018 사회적가치서베이 사회적 기업 대상 설문지의 ‘현재 귀사가 수익창출 및 이윤 극대화(0) 사회문제 해결(10)이라는 상반된 목표사이에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과 ‘향후 귀사는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둘 계획이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조직 목표가 수익창출에 가까울수록 0부터 4이고, 5는 둘 다 선택한 경우, 그리고 6부터 10까지 값은 사회문제해결에 방점을 두었다고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사회적 기업 경영원리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두 문항을 조작화하여 사용하였다. 현재 운영방향의 값에서 향후 운영방향의 값을 뺀 결과를 종속변수화 하였으며,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에서 현재 기업 운영방향에 대한 문항에서 사회문제해결에 가까운 7을 선택하였으나, 향후 운영방향의 경우 수익창출에 가까운 3을 선택하였다면 종속변수는 ‘7에서 ‘3’을 뺀 ‘4’가 된다. 즉 사회적 기업이 현재에 비해 향후 사회문

제해결보다는 수익창출 및 이윤 극대화 방향으로 운영목표를 변화한다고 보았다. 반대로 B라는 사회적기업이 현재 운영목표를 수익창출 및 이윤극대화인 '2'로 선택하고, 향후에는 두 가지 목표 모두 방점을 두는 '5'인 경우 '2'에서 '5'를 뺀 '-3'이 종속변수 값이 된다. 이 경우, 현재에 비하여 사회문제해결에 가까운 운영 목표로 변화한다고 추정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주요한 독립변수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해결 의지와 사회적 기업의 운영원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첫 번째 사회문제해결성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적 인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 기업의 주체적 역할과 사회적 기업의 기여도,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미래지향성을 측정하여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 가치 창출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반면 두 번째 독립변수는 사회적기업의 운영원리²⁾이다. 실제 조직 운영특성으로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 가치 추구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주체적 역할은 사회적 기업이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 여부로 기존에 정부만이 문제해결에 나섰다면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사회문제의 해결사로서 가능한가에 대한 인식이다. 사회적 기업의 기여도는 사회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여도의 총합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 및 주거불안, 노동 불안정, 교육불평등, 삶의 질 저하, 인구구조 및 가족 구성 변화 등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사회통합 저해, 안전위협,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자원고갈, 자연재해 총 10개 문항을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0)부터 크게 기여할 것이다(5)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총합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미래지향성은 본인의 기업 의지가 자녀에게도 그대로 인식하는지, 즉 만약에 자녀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한다고 할 때, 찬성할지 여부를 찬성할 경우 1, 반대할 경우 0으로 더미변수화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운영원리 문항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를 인센티브로 제공해야 하는지, 정부 지원금의 수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조직운영의 방향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3) 통제변수

마지막으로 분석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한 통제변수로 지역, 조직나이, 규모, 전년도 손익

2) 사회적 기업의 운영원리는 종속변수 구성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분석의 엄밀성에 논란이 있다. 다만, 경제성장률을 분석함에 있어서 GDP가 주요 설명요인으로 포함되는데 이는 GDP가 낮은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통제 차원과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도 과도한 해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을 통제하였다.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생존 및 수익 등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설립 후 생존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나이 역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신생기업일 수록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강하고, 조직 연령이 높은 기업일수록 내부 관성으로 인해 환경 변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손선화·장용석, 2016). 또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크지 않은 현실에서 정규직원의 수가 조직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손익을 통해 기업의 영업활동과 이에 대한 성과를 가늠해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여유자원(slack resource)으로 전년도 손익과 정규직원 수는 조직 규모로 활용하였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즉 여유자원이 풍부하고, 역량이 높은 기업들은 그 규모가 큰 기업에 해당한다(조희진 외, 2017). 마지막으로 전년도 손익 규모를 통제해주었다. 조직규모와 전년도 손익은 자연로그화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활용한 설문문항과 측정된 변수표는 아래의 <표 1>와 같다.

<표 1> 변수표

변수명		설문문항	비고	
종속 변수	사회적 기업의 목표 변화	문36. 현재 방침을 두는 운영방향 [수익창출(0) 부터 사회문제 해결(10)까지]에서 문 37. 향후 방침을 두는 운영방향을 뺀 값		
독립 변수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해결성	사회적기업의 주체적 역할	문9.귀하께서는 사회적기업이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사회적기업의 기여도	문10.사회문제들을 개선 또는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적기업이 어느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위 10개 문항의 총점	
		사회적기업의 미래지향성	만약 내자녀가 사회적기업을 창업한다면 창업반대=0, 찬성=1	더미 변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	금전적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	문28. 정부 혹은 대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성과를 측정하여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1)부터 매우 긍정(5) 5점 척도	
		지원금 수혜기간	문35-1. 정부 지원금 수혜 기간	
	기존 운영 목적	문36. 현재 귀사는 어느쪽에 방침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익창출 및 이윤극대화(0)부터 사회문제해결(10)까지 측정		
통제 변수	소재 지역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세종, 9.경기, 10.강원, 11.충북, 12.충남, 13.전북, 14.전남, 15.경북, 16.경남, 17. 제주		
	조직나이	2018-설립년도		
	조직규모	정규직원수	자연 로그	
	전년도 손익	2017 손익	자연 로그	

IV.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

실증 분석을 위한 162개 자료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의 <표 2>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향후 수익창출로 운영방향을 전환하는지의 여부는 변수의 조작화를 통해 현재 운영방향과 향후 운영방향의 차이로 구하였다. 평균은 -0.08 수준으로 최댓값은 4, 최솟값은 -7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의 주체적 역할은 10점 척도에서 평균 6.47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의 기여도의 경우에는 결측치를 제외한 평균은 3.26이고 최솟값은 1.2, 최댓값은 4.7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의 미래지향성인 자녀의 창업에 찬성과 반대 여부는 평균은 0.87로 나타나서 찬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인센티브의 경우 평균 3.9 정도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 지원금의 수혜기간은 평균 3.6년으로 최대 8년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의 현재 운영방향은 사회문제해결이 10에 가깝고 0에 가까울수록 수익창출 및 이익 극대화에 방점을 두었다고 측정했을 때, 평균 4.78로 둘 다 추구하는 것보다 약간 경제적 가치를 더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 나이는 최소 4년에서 최대 33년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 10년의 업력을 갖고 있었다. <부록 1>은 회귀분석에 활용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기초통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최솟값	최댓값
사회적 기업의 목표 변화	162	-0.0802	1.1847	-7	4
사회적 기업의 주체적 역할	162	6.469136	2.207	0	10
사회적 기업의 기여도	162	3.269942	0.604	1.2	4.7
사회적 기업의 미래지향성	162	0.876543	0.330	0	1
금전적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	162	3.895062	0.910	1	5
지원금 수혜기간	162	3.611111	1.227	0	8
기존 운영 목적	162	4.783951	1.9069	0	10
서울특별시	162	0.082469	0.273	0	1
부산광역시	162	0.074074	0.263	0	1
대구광역시	162	0.006173	0.0786	0	1
인천광역시	162	0.049383	0.217338	0	1
광주광역시	162	0.061728	0.241408	0	1
대전광역시	162	0.024691	0.155664	0	1
울산광역시	162	0.030864	0.173486	0	1

세종특별자치시	162	0.006173	0.078567	0	1
경기도	162	0.148148	0.356348	0	1
강원도	162	0.092593	0.29076	0	1
충청북도	162	0.074074	0.262704	0	1
충청남도	162	0.049383	0.217338	0	1
전라북도	162	0.098765	0.299272	0	1
전라남도	162	0.067901	0.252356	0	1
경상북도	162	0.04321	0.20396	0	1
경상남도	162	0.049383	0.217338	0	1
제주특별자치도	162	0.04321	0.20396	0	1
조직나이	162	10.53704	5.150094	4	33
전년도 손익(로그변환)	162	7.432425	2.506799	0	12.42922
조직규모(로그변환)	162	2.208363	1.117144	0	6.109248

2. 실증 분석 결과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분석은 일반 회귀모형(Model 1)과 정부지원금 수혜 기간에 따른 기업 운영원리 변화 모형(Model 2)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Model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의 정당성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주체적 역할과 사회적 기업의 미래지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의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보다 사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적 기업의 주체성이 낮을 때 오히려 수익창출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기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사회적 기업의 미래지향성의 경우, 내 자녀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한다고 할 때 창업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의 문항으로 확인하였다. 자녀의 사회적 기업 창업을 찬성할수록 사회문제 해결로 사회적 기업의 목표가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한 의지가 향후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구축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에서는 정부지원금의 수혜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기존 운영목적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현재 운영방향이 사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 수익창출로의 기업 목표 변화가 나타났다. 사회문제 해결에 목표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는 수익창출로 목표를 전환하고자 함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가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수혜기간이 길수록 수익창출 방향으로 목표를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 지원금의 수혜기간과 관련해서는 정부지원금이 사회적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에서 혼재된 결과들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수혜기간에 따른 목표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Model 2에 제시하였다.

Model 2의 결과를 보면, Model 1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의 수혜기간의 경우, Model 1과 달리 플레인텀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정부지원금의 수혜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업은 사회문제해결보다는 수익창출 및 극대화에 방점을 둔 운영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Model2에서는 지원금수혜기간의 제곱항(Square term)을 추가하여 추정해보았다. 이를 도식화해보면 수혜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익창출의 변화 의지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즉, 사회적 책무성으로 거의 전환된 적이 없이 수익성을 증진하려고 노력하다가 다시 수익성이 하락되는 것으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책무성을 증진시키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지원금의 수혜가 선형의 결과가 아닌 2차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계값은 4.95년으로 정부지원금의 수혜기간은 5년을 기점으로 그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강석민(2014)에서도 매출액에 대한 정부지원의 영향에 관한 결과를 보면, 경영성과에 미치는 정부지원의 비선형 영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정부지원금 수혜기간에 따라 초기 5년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생존을 위해 수익창출이라는 운영목표를 추구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 정부지원이 길어질수록 사회적기업의 사회문제해결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나타내어 정부지원금 수혜기간의 역U자형 영향이 규명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의 경우, 전년도 손익이 적은 사회적기업 일수록 수익창출 모델로 기업의 목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사회문제해결에 보다 노력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가 동시에 추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재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비해 경기도와 강원도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의 경우 향후 사회문제해결에 더욱 목표설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가 가장 비중이 크고 전북, 강원 순이고 특히 강원도는 인구대비로 전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가장 많다. 분석에 포함된 경기도 사회적기업은 평균 3.67년간 정부의 지원금을 수혜 받았으며, 강원도는 3.13년의 평균을 보여주며 기준이 되는 서울특별시보다는 사회문제해결로 목표변화를 한다. 그 외 조직나이, 정규직원 수인 조직 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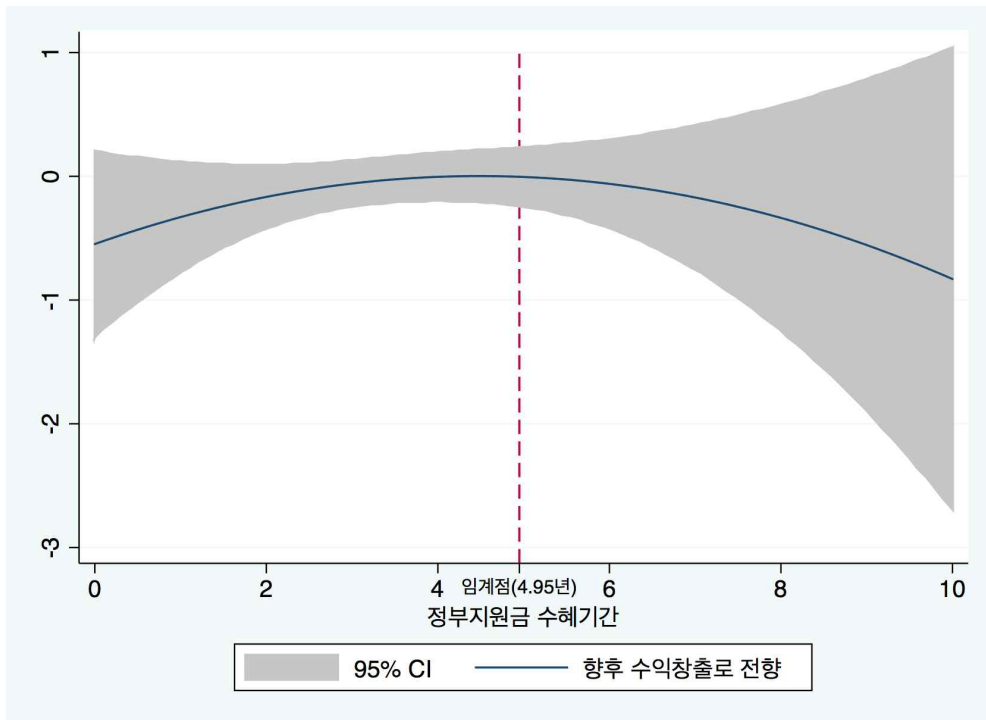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성과 미래지향성을 가질수록 수익보다는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로운 결과는 현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업 운영방향을 두고 있는 기업일수록 수익창출로 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적절하게 보완되어야 지속가능성과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표 3〉 사회적 기업 목표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

변수명		MODEL1	MODEL2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성	사회적기업의 주체적 역할	-0.080**(0.044)	-0.080**(0.046)	
	사회적기업의 기여도	0.071(0.166)	0.000(0.174)	
	사회적기업의 미래지향성	-0.669**(0.295)	-0.567*(0.306)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	금전적 인센티브에 대한인식	-0.057(0.104)	-0.064(0.106)	
	지원금 수혜기간	0.137*(0.079)	-0.068(0.200)	
	지원금 수혜기간2	1		0.379(1.125)
		2		1.051(0.969)
		3		1.168(0.850)
		4		1.340(0.837)
		5		1.553*(0.861)
		6		2.172*(1.243)
		7		3.724**(1.562)
		8		omitted
기존 운영 목적	0.242*** (0.051)	0.254*** (0.052)		
소재 지역(서울특별시 =1)				
부산광역시	-0.159(0.459)	-0.122(0.468)		
대구광역시	-0.080(1.144)	-0.021(1.153)		
인천광역시	-0.286(0.509)	-0.223(0.539)		
광주광역시	-0.346(0.478)	-0.269(0.487)		
대전광역시	-0.459(0.660)	-0.400(0.662)		
울산광역시	0.017(0.615)	0.151(0.626)		
세종특별자치시	-0.416(1.175)	-0.452(1.189)		
경기도	-0.706*(0.387)	-0.543(0.402)		
강원도	-0.824*(0.421)	-0.744*(0.439)		
충청북도	0.201(0.443)	0.265(0.451)		
충청남도	0.000(0.502)	0.057(0.510)		
전라북도	0.016(0.427)	0.099(0.445)		
전라남도	0.077(0.469)	-0.001(0.486)		
경상북도	-0.342(0.530)	-0.372(0.553)		
경상남도	0.113(0.504)	0.146(0.511)		
제주특별자치도	-0.274(0.518)	-0.225(0.529)		
조직나이	0.009(0.018)	0.009(0.018)		
전년도 손익(로그변환)	-0.098**(0.018)	-0.101**(0.041)		
조직규모(로그변환)	0.124(0.092)	0.139(0.094)		
상수	-0.030(0.866)	-0.538(1.487)		
N	162	162		
R-squared/Adj R-squared	0.2854	0.1541		

*p<0.1, **p<0.05, ***p<0.01, 괄호 안은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그림 2〉 정부지원금 수혜기간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수익창출로의 목표 변화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목표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정당성과 실제 기업의 운영원리가 사회적 기업 목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조사한 사회적 기업 서베이의 문항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기업이 지닌 특수성으로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동시 추구라는 특수성에 주목하여 사회적 기업의 운영목표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반영한 이상적인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미래지향성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사회문제해결성 즉,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 기대하는 역할과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해당 기업의 운영목표는 사회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지원

금을 받기 위해서 취약계층 고용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 실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조희진·장용석, 2016). 즉 사회적 기업의 자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환경적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사회문제들의 문제해결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수반되어야 사회적 가치와 수익창출 및 이윤극대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현재 사회문제 해결에 목표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는 수익창출로 목표를 전환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은 더 혁신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을 추구해야한다.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므로 확실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성과를 인정받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이다(장용석 외, 2018).

셋째, 정부지원금 수혜기간이 5년 이내의 초기단계 사회적 기업의 경우, 조직의 생존을 위하여 수익창출 및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만, 그 이상 수혜 받은 경우에는 사회문제해결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목표를 수정한다. 사회적 기업의 실제 운영과 운영목표의 변화는 역U자형의 비선형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실제 정부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은 69.1%에서 80.5%로 5년에 불과하다(한국경제, 2017). 이는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수익창출이 주사업목적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사업 모델의 특징으로 인해 초기 경영에 어려움이 크게 작용한다. 이 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면 사회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정부지원을 통한 조직의 생존과 경제적 이익 창출은 지속가능성의 필수적인 요인이며, 정부 이외 영역에서의 재정지원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적 기업들은 '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웠다(신국현·서순탁, 2014). 결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하며 임팩트 투자 및 민간 투자자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부 및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정책 수요자인 사회적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역할을 확대하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장기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인건비 중심이라는 문제와 함께 창업 초창기 5년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고용노동부, 2014; 조희진 외, 2017 재인용). 정부의 인건비 지원 기간은 예비 사회적 기업일 경우 최대 2년, 사회적 기업일 경우 최장 3년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성장에는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사회적 기업의 수익창출과 사회문제해결의 동시적 추구가 일어나려면 기업운영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사회적 기업 정부 인증 기준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창업 준비부터 회생을 위한 단계까지 고루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대상과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서울경제, 2018). 본 연구에서는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사회적 혁신 생태계 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여타 사회적 기업에 비해 거대한 조직 규모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지 않는 곳도 있다(장용석 외, 2018). 기존의 정부 권역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역할인 컨설팅, 교육 외에도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자금과 판로확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정부 역시 효과적인 정책 운영을 위하여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설정하여 사회적 기업이 초기 정부지원금 지원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생존하여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역량을 보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한다.

【참고문헌】

- 강운호. (2008). “지역경제 성장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42(1): 365-381.
- 김경희. (2013).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공공사회연구>. 3(2): 126-150.
- 김숙연. (2014).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가치와의 관련성”.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3(2): 103-122.
- 김숙연. (2016). “사회적기업 가치가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50: 171-192.
- 김영철. (2011). “사회적 경제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 <지역사회연구>. 19(2): 25-49.
- 김용현·장승욱·강지은. (2015). “기업의 CSR과 장기 재무성과”. <글로벌경영학회지>. 12(2): 157-179.
- 김재홍·이재기. (2012).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분석”. <한국행정논집>. 24(4): 1037-1063.
- 김창수. (2009).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가치”. <한국증권학회지>. 38(4): 507-545.
- 남승연·조창현·정무권. (2010). “사회적 기업의 개념화와 유형화 논쟁: 사회적 기업의 다양성과 역동성의 이해를 위하여”. <창조와 혁신>. 3(2): 129-173.
- 박찬임. (2008).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의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44: 21-33.
- 박헌준·이종건. (200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재무적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인사조직연구>. 10(1): pp.95-133.
- 서울경제. (2018). “고비용에 협력사 일감반납 속출, 비용줄이려 사회적 기업 편법 설립 등” 2018년 10월 8일자.
- 서울경제. (2018). “2022년까지 사회적 기업에서 일자리 10만개 창출한다”. 2018년 11월 09일자.
- 선남이·박능후. (2011).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2): 141-164.
- 손선화·장용석. (2016). “한국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사회형평적 채용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4): 193-220.
- 손선화·엄영호·장용석. (2018).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22(2): 477-499.
- 송위진. (2014).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 특성과 시사점”. <동향과이슈>. 제14호.
- 신국현·서순탁. (2014). “사회적 기업의 거버넌스 심층 분석: 신수동 행복마을(주)과 홍성유기농영농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7(1):317-343.
- 신명호. (2013). “사회적경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인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제4회 월례정책포럼 발표집>.
- 안영규. (2010). <대구경북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평가>. 대구경북연구원. 1-13.
- 엄영호·손선화·장용석. (2018).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정책 균형잡기 역할의 모색”. <지방정부연구>. 21(4): 369-389.

- 여영준·김범석·김우섭. (2018).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재무성과와의 선후행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18(1):189-198.
- 오단이. (2013). <한국 사회적 기업의 형성 및 성장과정 연구: 사회복지영역에서 전환한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위평량·김윤호. (2006). “윤리경영과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국제지역연구>. 10(1): 450-475.
- 이광윤. (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회계이익조정 및 재무적 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_경제정의지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준희. (2016). “조직특성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경제와 정책연구>. 5(2): 97-133.
- 이현주. (2016). “자활기업에서 성장한 사회적 기업의 기업운영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8(1): 169-191.
- 장성희·반성식. (2010).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 지향성과 시장 지향성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3(6): 3479-3496.
- 장용석·김희성·황정윤·유미현. (2015). <사회적 혁신 생태계 3.0>. 서울: CS 컨설팅& 미디어.
- 장용석·조희진. (2013). “공공-민간 경영 패러다임의 융합적 전환: 변화의 추세와 조직의 대응”. <인사조직연구>. 21(3): 69-104.
- 장용석·조희진·김보경·황정윤·이영동. (2018). <사회적 가치의 재구성>. 문우사.
- 장원봉. (2007).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나눔의 집.
- 정명은·안민우. (2017). “조직장, 제도적 논리 그리고 구성된 행위자- 한국 지방정부 기금의 제도화 과정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5(3): 37-74.
- 정수현·김숙연. (2018).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 및 기업가치와의 관련성”.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1): 89-111.
- 조상미·정선희·김재신. (2017). “사회적기업의 폐업경험: 과정은 어때하고 그 요인은 무엇인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2): 81-128.
- 조상미·선민정·임근혜. (2018). “사회적기업의 성과, 무엇으로 보는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2): 81-128.
- 조희진. (2014). <공공가치의 융합적 전환: 정부의 효율성과 시장의 책임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희진·권오영·장용석. (2017).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본 정부역량: 거버넌스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6(3): 37-75.
- 조희진·장용석. (2014).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요인 및 조직 효과성 분석: 공공기관의 전략적 선택과 제도적 조응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3(1): 343-372.
- 조희진·장용석. (2016).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 <한국정책학회보>. 25(4):

337-366.

- 조희진·손선화·장용석. (2018).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주의 조직론을 통해 본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분석과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27(1): 183-222.
- 주성수. (2010). <사회적 경제: 이론, 제도, 정책>. 한양대학교출판부.
- 최태원. (2014).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 서울: 이야기가 있는 집.
- 한국사회적기업연구소. (201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연구>. 한국사회적기업연구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 <한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국경제. (2017). "몸집 커진 '착한 경제', 인증·평가방식 개선해야 '날개'". 2017년 6월 14일자.
- 황정윤·조희진. (2016). "사회적 기업 설립의 영향요인 분석: 기능주의와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2(3): 237-277.
- Alvord, S. H., Brown, L. D., & Letts, C. W. (2004). "Social Entrepreneurship and Societal Transformation".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40(3): 260-282
- Ashforth, B. E., & Gibbs, B. W. (1990). "The double-edge of organizational legitimation". *Organization science*. 1(2): 177-194.
- Battilana, J., Lee, M., Walker, J., & Dorsey, C. (2012). "In search of the hybrid ideal".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ummer 2012: 51-55.
- Dart, R. (2004). "The legitimacy of social enterprise".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14(4): 411-424.
- Defourny, J., & Develtere, P. (1999). "Origines et contours de l'économie sociale au Nord et au Sud". *L'économie sociale au Nord et au Sud*. 25-50.
- Frumkin & Galaskiewicz. (2004).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public sector organization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4(3): 283-307.
- Galera, Giulia & Carlo Borzaga. (2009). "Social Enterprise: An International Overview of Its Conceptual Evolution and Legal Implementation". *Social Enterprise Journal*. 5(3): 210-228.
- Gueslin, A. (1998). *L'invention de l'économie sociale*. Paris: Economica.
- Jones, Peter., & David Hiller. (2005).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a Means of Marketing to and Communicating with Customers Within Stores: A Case Study of UK Food Retailers". *Management Research News*. 28 (10).
- Meyer, J. W. & Rowan, B. (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2): 340-363.
- Oliver. (1991). "Strategic responses to institutional process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1): 145-179.

Schwartz, R. A. (1968). "Corporate Philanthropic Contributions". *The Journal of Finance*. 23(3): 479-497.

Scott, W. Richard. (2008). "Approaching adulthood: the maturing of institutional theory". *Theory and society*. 37(5): 427-442.

Weerawardena, Jay & Gillian S. Mort. (2006). "Investigating Social Entrepreneurship: A Multidimensional Model". *Journal of World Business*. 41(1): 21-35.

투 고 일: 2019년 2월 15일

수 정 일: 2019년 4월 1일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9일

* **손선화(孫善和)**: 연세대학교에서 "한국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관한 연구: 사회형평적 채용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2015)"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적 책임, 제도주의 조직론 등이며,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는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주의 조직론을 통해 본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분석과 함의(2018)",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정책 균형잡기 역할의 모색(2018)",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2018)" 등이 있다(sswha@yonsei.ac.kr).

* **엄영호(嚴永鎬)**: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제목: 한국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동형적변화 분석-사회복지예산을 중심으로)를 취득하고(2014), 현재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제도주의 조직론, 사회혁신, 지방행정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정책 균형잡기 역할의 모색(2018)", "National reputation as an intangible asset: a case study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in Korea(2019)", "Policy Shaped under Pressure: Internationalization, Decentralization, and Policy Adoption of Local Governments(2019)" 등이 있다(eomyoungho@gmail.com).

〈부록 1〉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사회적기업의 목표변화	1										
사회적 기업의 미래지향성	-0.0913 (0.1035)	1									
사회적기업의 주체적 역할	-0.0774 (0.168)	0.1610* (0.0039)	1								
금전적 인센티브에 대한인식	0.0184 (0.744)	0.056 (0.1801)	-0.007 (0.9016)	1							
사회적기업의 기여도	0.0771 (0.1695)	0.1063 (0.0578)	0.2066* (0.0002)	0.0134 (0.8119)	1						
기존운영목적	0.3612* (0.000)	0.1485* (0.0079)	0.1101* (0.0495)	0.0520 (0.3572)	0.3468* (0.000)	1					
정부 지원금 수혜기간	0.0366 (0.5589)	-0.0346 (0.5806)	-0.0481 (0.4417)	0.0043 (0.9450)	0.0195 (0.7553)	-0.1410* (0.0235)	1				
소재 지역	0.0087 (0.8771)	-0.1288* (0.0214)	-0.0153 (0.7858)	0.1199* (0.0331)	-0.0489 (0.384)	-0.1081 (0.0538)	0.0491 (0.4323)	1			
조직나이	0.0473 (0.4000)	-0.0594 (0.2898)	0.0508 (0.366)	0.0827 (0.1426)	-0.0441 (0.4321)	0.028 (0.6187)	-0.0735 (0.2392)	-0.0497 (0.3761)	1		
전년도 손익	-0.1401 (0.0546)	0.058 (0.4281)	-0.1251 (0.0864)	0.13 (0.077)	-0.017 (0.8168)	0.0094 (0.898)	-0.0359 (0.6472)	0.0373 (0.6104)	0.098 (0.1799)	1	
조직 규모	0.0894 (0.1122)	0.1062 (0.0588)	0.0421 (0.4552)	-0.0466 (0.4102)	0.1131* (0.0443)	0.1249* (0.0262)	0.0717 (0.2508)	-0.0805 (0.1525)	0.0943 (0.0939)	0.2961* (0.000)	1